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 늘어난 외로움, 멀어진 도움들

요 약

-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다.
-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사회적 지원 격차는 더 벌어진다. 1인가구에서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다.
- 독거노인은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상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출산률 저하와 이혼의 확산, 노인부양규범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85년 4.16명에 달하던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기 1인가구의 비율은 6.9%에서 23.9%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 특히 노령 1인가구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도 높아졌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공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 예를 들어 친지나 이웃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사회적 지원이라고 한다. 사회적 지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이 사회적 지원의 기본적인 공급처임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1인가구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할 수 있다. 건강상태 악화로 일상적 생활이 어렵거나, 외로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가구주의 연령별로 한국의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뒤에, 한국의 사회적 지원의 실태를 가구규모별로 다른 국가와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 및 성별 특성에 주목하며,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인가구의 다양성

〈표 VI-13〉은 전체 가구구성원과 1인가구 구성원의 연령별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구성원 중 80세 이상의 비율은 2.5%인데 반해 1인 가구원 중 동일 연령층의 비율은 8.4%이다. 위 표에 따르면 1인 가구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3정도이며, 40세 미만도 전체의 30%를 약간 상회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1인 가구원들의 연령적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VI-14〉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성비, 고졸 이상 학력보유자의 비율, 농어림 가구 비율, 결혼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표 VI-14〉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1인가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고졸 이상의

〈표 VI-13〉 전체 가구 및 1인가구 내에서 각 연령층의 비율: 2011
(%, %p)

연령	전체가구 에서의 비율	1인가구에서의 비율	차이
15-19세	7.0	0.3	-6.8
20-24세	6.8	5.4	-1.4
25-29세	8.7	9.9	1.2
30-34세	9.6	8.5	-1.1
35-39세	10.2	8.7	-1.6
40-44세	10.5	7.4	-3.1
45-49세	10.2	5.8	-4.5
50-54세	10.0	8.4	-1.7
55-59세	7.5	7.3	-0.3
60-64세	5.6	7.4	1.8
65-69세	4.5	7.2	2.7
70-74세	3.9	8.0	4.1
75-79세	2.8	7.6	4.7
80세 이상	2.5	8.4	5.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비율은 40세까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어업종사 비율은 두 집단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2인 이상 가구에서의 비율이 1인가구에 비해 더 높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혼 및 이혼, 사별의 비율은 1인가구에서 더 높다. 특히 〈표 VI-14〉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40세 미만에서는 1인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원 사이에 교육수준 및 농림어업

〈표 VI-14〉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원의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농림어업종사 기준 비교: 2011

	여성비율		고졸 이상 비율		농림어업 종사비율		미혼비율		이혼 및 사별비율	
	1인가구	2인 이상	1인가구	2인 이상	1인가구	2인 이상	1인가구	2인 이상	1인가구	2인 이상
15-29세	42.8	51.9	97.9	97.9	6.6	9.8	91.1	82.2	1.8	0.4
30-39세	44.6	49.1	96.1	97.8	5.6	8.4	65.0	20.1	11.1	1.7
40-49세	40.6	50.0	86.2	90.5	5.7	10.2	34.3	3.4	34.1	5.8
50-59세	55.0	49.5	52.0	63.5	9.6	14.5	10.6	0.9	55.5	7.5
60세 이상	76.5	50.6	15.5	32.6	12.6	21.0	1.4	0.1	84.8	17.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종사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40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1인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원이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참여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인 가구원의 다양성 및 이질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2인 이상 가구원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을 살펴본다.

사회적 지원의 국제비교

가구규모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사회적 지원 실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도록 하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2001년 사회적 지원에 관한 동일한 설문을 24개국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표 VI-15>는 그 결과를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별로 비교한 것이다.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상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응답자들은 한국이 14.2%로

<표 VI-15> 사회적 지원의 국제비교(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의 비율): 2001

	전체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일상	재정	심리	일상	재정	심리	일상	재정	심리
호주	2.53	6.04	3.59	6.67	11.52	7.01	1.66	4.88	2.91
영국	1.40	11.35	3.88	3.90	20.33	7.38	0.48	7.92	2.53
북아일랜드	1.54	13.28	0.00	3.40	26.54	0.00	0.89	8.66	0.00
미국	2.54	11.86	3.86	4.88	12.36	6.23	1.42	11.62	2.73
오스트리아	0.50	13.10	5.25	1.61	20.56	9.27	0.13	10.64	3.94
헝가리	1.91	20.77	10.46	5.69	34.95	16.72	0.98	17.35	8.96
노르웨이	0.75	1.89	2.99	2.53	5.50	3.45	0.47	1.33	2.92
체코	1.18	11.87	4.36	3.37	19.55	9.39	0.79	10.52	3.46
슬로베니아	0.65	8.55	5.39	2.67	26.67	8.00	0.50	7.19	5.19
폴란드	0.83	11.76	4.05	1.63	16.94	8.65	0.68	10.84	3.22
러시아	1.55	13.52	4.36	7.92	26.04	10.98	0.58	11.61	3.35
뉴질랜드	2.02	6.24	4.26	7.52	16.31	5.67	1.26	4.77	4.05
캐나다	1.41	4.31	3.18	9.16	10.69	5.34	0.32	3.42	2.88
필리핀	0.17	9.25	3.92	0.00	20.00	12.00	0.17	9.02	3.74
이스라엘-유대인	3.52	12.11	11.98	16.48	30.77	32.97	2.29	10.33	9.99
이스라엘-아랍계	5.26	2.63	4.61	0.00	0.00	0.00	5.30	2.65	4.64
일본	0.53	4.87	2.73	2.99	5.97	1.49	0.40	4.81	2.80
스페인	1.84	3.90	4.88	8.85	9.73	15.04	1.11	3.28	3.81
라트비아	2.30	18.10	15.80	6.54	22.22	20.26	1.53	17.36	14.99
프랑스	2.96	6.31	4.49	6.71	10.65	8.20	1.80	5.01	3.36
키프러스	0.20	0.00	0.50	0.00	0.00	0.00	0.22	0.00	0.54
칠레	1.67	14.04	7.83	6.00	18.37	19.00	1.36	13.74	7.03
스위스	1.20	7.52	4.71	4.40	13.20	11.60	0.13	5.61	2.41
핀란드	2.73	5.66	5.29	10.44	12.00	11.51	0.94	4.19	3.83
한국	3.50	7.02	4.74	14.20	17.40	14.80	2.10	5.70	3.40
조사대상 국가 평균	1.79	9.04	5.08	5.50	16.33	9.80	1.10	7.70	4.27

주: 1) 일상적 지원은 "Suppose you had the flu and had to stay in bed for a few days and needed help around the house, with shopping and so on. Who would you turn to for help?", 재정적 지원은 "Suppose you needed to borrow a large sum of money. Who would you turn to first for help?", 심리적 지원은 "Suppose you felt just a bit down or depressed, and you wanted to talk about it. Who would you turn to first for help?"의 질문에 "no one"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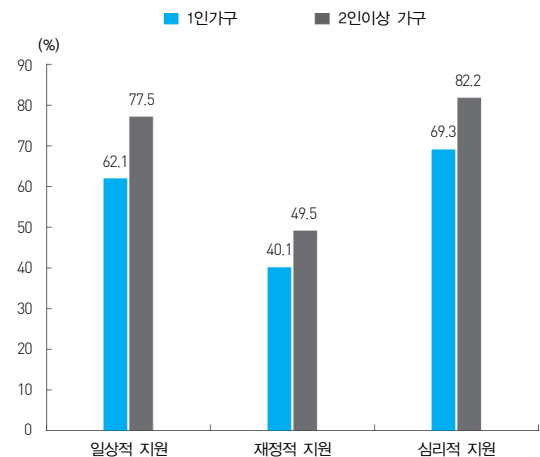
국가 평균인 5.5%를 3배 정도 상회한다. 한국의 1인가구보다 일상적 지원이 취약한 국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뿐이다. 그리고 한국의 1인가구 중 17.4%가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 평균인 16.3%를 약간 상회하였다. 재정적 도움에 대해서는 영국, 북아일랜드, 라트비아, 헝가리, 러시아 등의 1인가구가 한국 보다 더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의 1인가구 중 14.8%가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평균인 9%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한국의 1인가구는 일상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에서 다른 나라의 1인가구에 비해 더욱 더 취약하며, 재정적 지원에서는 여러 국가의 중위권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특성은 2인 이상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사회적 지원과 가구규모

사회적 연결망은 생활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준다. 실업, 이혼, 사별 등 생의 중대한 위기에서 따듯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다. 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공식적인 육아기관보다는 가족에게 아기를 더 맡기고 싶어 한다. 사회적 지원은 보통 일상적 지원, 심리적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일상적 지원에서는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고, 심리적 지원에서는 친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그렇지만 여러 사회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및 친족이라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의 성원들은 사회적 지원 획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자료인 『사회조사 2011』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그리고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일상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그림 VI-12]는 가구원수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12] 가구원수와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¹⁾: 2011



주: 1) 일상적 지원은 19세 이상, 재정적·심리적 지원은 13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VI-12]는 1인가구의 구성원이 세 차원의 사회적 지원에서 모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원은 62.1%만이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인 75.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일상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5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그 확률은

83.9%에 달하고 있다. 또 1인 가구원은 평균 2.33명의 사람에게서 일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 3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이들(3인가구 2.36명, 4인가구 2.69명, 5인가구 2.77명)에 비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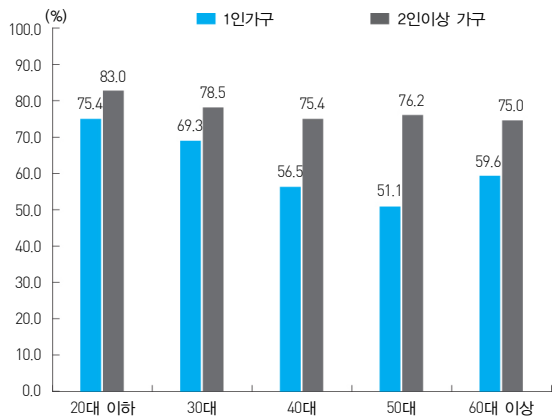
재정적 지원으로 넘어가보자. 1인가구 구성원의 40.1%가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인 4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 지원의 가능성 역시 낮았다. 가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림 VI-12]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가구에 거주할 경우 그 확률이 40%가 넘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응답자들은 평균 2.5명의 사람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였는데, 1인가구는 2.34명이었다. 가구의 크기가 큰 사람에 비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

심리적 지원 역시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1인가구 가구원 중 10명 중 3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리적 지원을 기대할 상대 역시 3명 미만으로 3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일상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좁았다. 요약하면, 세 차원의 사회적 지원에서 1인 가구원들은 지원의 가능성도 지원 상대의 폭도 적었다. 세 가지 차원 중 일상적 지원이 절대적인 수치나 변이계수(coefficients of variation) 양 측면에서 모두 차이가 가장 컸다. 분석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교육이나 소득, 연령, 성별 등의 일반적인 사회적 속성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1인가구의 이질성과 사회적 지원

본 절에서는 이러한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차이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VI-13]은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일상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VI-13]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일상적 지원의 획득가능성: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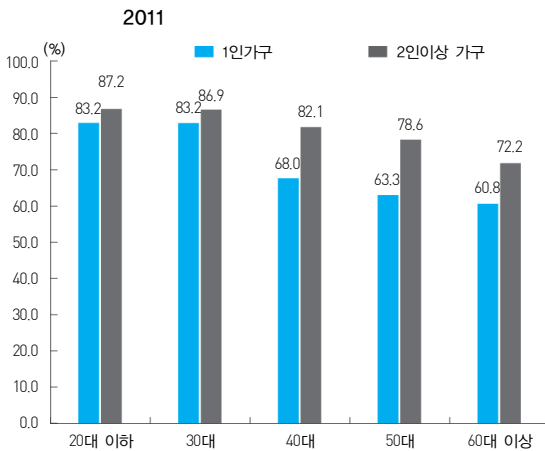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VI-13]은 가구규모에 따른 일상적 지원의 획득 가능성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1인가구와 여타집단의 차이가 10%p 미만인데 반해, 40대와 50대에서는 20%p 정도이고 60대 이상에서는 15.4%p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이하와 30대 경우 1인 가구원의 70% 가량이 일상적 지원을 기대하는데 반해, 40대부터는 이러한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혼자 사는 가구들 중 일상적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연령집단에서 일상적 지원 획득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1인가구와 여타가구간의 심리적 지원 획득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 VI-14]

에서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지원 획득가능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낮아지고 있으나 40대 이상의 1인가구에서 심리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림 VI-14]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심리적 지원의 획득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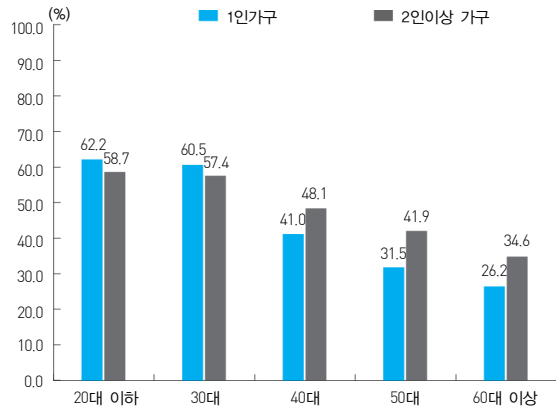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가구규모와 사회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에 대한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는 재정적 지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VI-15]에 따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1인가구가 오히려 재정적 지원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10%p 정도의 차이로 2인 이상 가구의 구성원이 재정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 심리적 지원의 경우 여성이, 일상적 지원의 경우 남성이 획득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가구규모와 무관하게 발견되고 있다. 재정적 지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2인이상 가구원의 경우 재정적 지원의 획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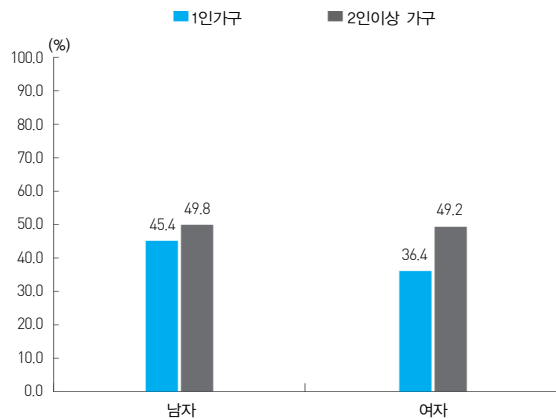
[그림 VI-15]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획득가능성: 201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성에 대해서는 성별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1인가구에서는 약 9.0%p의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확인한 1인가구의 재정적 지원의 취약성은 여성에게서 특히 현저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I-16] 성별에 따른 가구규모별 재정적 지원의 획득가능성: 201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앞서 언급한 연령별 차이와 함께 성별차이를 함께 고려해본다면, 고연령대의 여성은 재정적 지원의 획득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다. 본 자료에서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원 중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는 4명 중 1명(27.2%) 정도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복지 및 공적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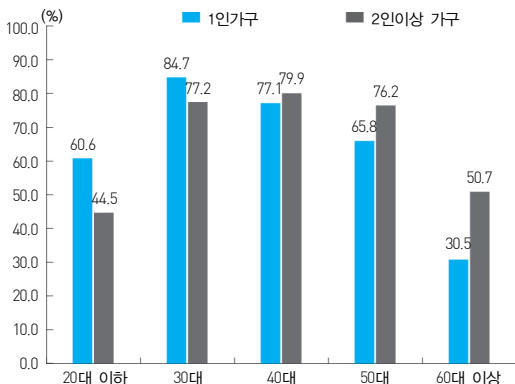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가구규모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지원 체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식적 지원체계 혹은 복지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이들 1인가구의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VI-17]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을 가구규모와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40대 이후 1인 가구원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낮으며, 60대 이상에 이르러서는 30.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60대 이상의 1인 가구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 현재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37.4%에 불과해 2인 이상 가구의

5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43.4%) ‘정부 및 사회단체’(18.5%)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욱 빈번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1인가구 44.7% vs 2인 이상 가구 39%).

물론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을 겪는 것은 아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원은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9.2%로 2인 이상 가구의 2%에 비해 4배나 높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식적 지원체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그림 VI-18]은 간병서비스나 가사서비스, 식사제공 등 부족한 일상적 지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1인 가구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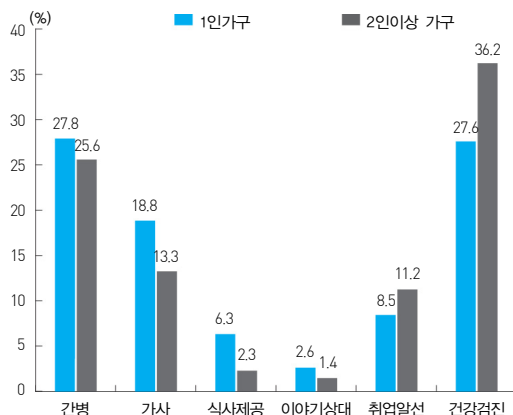
가족이나 동거하는 가구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이

[그림 VI-17]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른 노후준비 비율¹⁾: 2011



주: 1) 19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그림 VI-18] 희망하는 복지서비스¹⁾: 2011



주: 1) 60세 이상 응답자 대상이며, 주된 응답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다. 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도움을 문 너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보여주다시피 그 문은 때때로 열리지 않는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그 문은 일상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한국인들에게 더욱 높다. 이는 압축적인 근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었는데 비해 대안적인 사회적 지원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기 혹은 전쟁 전에 출생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에 젖어 있는 고연령층에게 대안적인 사회적 참여 및 소통 방식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도구적 고려가 큰 한국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1인 가구원에게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는 독거노인의 취약한 사회적 지원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가 일상적 요구를 채워 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1인가구의 이질성에 주목하면서,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구원수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 및 사회적 지원의 격차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40세 이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젊은 1인 가구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결혼 규범의 약화에 따라 이들은 계속 1인가구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부양 규범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한 이들은 보다 인간적인 노년을 위해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대비를 이전 세대보다 잘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연구가 없다. 보다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한 2011년 『사회조사』는 겨우 2년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설문을 질문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자료의 크기나 설문의 차이로 인해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연령에 따른 1인 가구원과 2인 이상 가구원의 차이가 연령의 효과인지, 세대의 효과인지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큰 한계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재기(숭실대학교)